

편집자와 필자

송상용 한림대 교수·본지 편집위원

왕년의 명칼럼니스트 리프먼이 「헤럴드 트리분」에 원고를 보내면 구두점이 틀렸더라도 무슨 뜻이 있었거나 해서 감히 고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것은 그가 보통사람이었다면 당연히 바로잡았을 것이라고 해석됨직도 하다.

실제로 외국 편집자들은 원고를 많이 뜯어 고친다. 논문 필자와 잡지 편집자 사이에 冠詞 하나를 둘러싸고 교정쇄가 왔다갔다 싸움을 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독일서 미국에 이민 간 어떤 교수는 처음 책을 낼 때 원고가 새빨간게 됐어도 할말이 없었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다.

원고를 받아 읽은 편집자는 고치고 싶은 유희를 물리치기 어렵다. 남의 글이 마음에 드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못마땅하다고

남의 글에 함부로 손대는 것은 삼가야 하지 않을까. 맞춤법, 한자, 띄어쓰기가 누가 보아도 명백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면 고마워 할 일이다.

물론 이때도 신중해야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정도를 넘어서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는 남의 글을 난도질하는 데서 쾌감을 맛보는 악취미를 가진 편집자가 많다. 그 결과 내용과 문체가 완전히 달라진 작품이 나오기도 한다.

언젠가 신문에 '휘그역사해석'이 여러번 나오는 글을 썼더니 모조리 '피그'로 고쳐 나왔다. Whig를 Fig로 알았던 모양인데 '피그'는 Pig가 될 수도 있으니까 '돼지역사해석'이 된 셈이다. '과학학'에서 '학'을 빼버려 '과학'으로 둔갑하는

가 하면 '日食'이 '日蝕'으로, 수(宿)가 '숙'으로 바뀌기도 한다. 무서운 황포가 아닐 수 없다.

우수한 편집자는 필자의 잘못을 찾아내고 글을 다듬으며 더 좋은 표현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단, 편집자는 필자의 양해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편집자의 상식은 엉뚱하게 빛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수정을 거부하면 편집자는 따라야 하며, 그것이 안될 때는 원고를 돌려주는 수밖에 없다.

요컨대 필자의 원고는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고친 것이 활자화되면 필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 필자들도 글을 공들여 쓰고 손댈 필요가 없을만큼 완벽한 원고를 만들어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책을 너무 급하게 만들어 편집자와 필자가 충분히 대화할 시간이 없다. 이런 근본문제가 있기는 하나, 양쪽의 성실한 자세가 말썽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

출판저널

통권 제 40호 / 1989년 5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李起雄
인쇄인 — 李堯秀
편집주간 — 李勝羽
편집차장 — 康鐵柱
기자 — 吳愛里 金芝媛 車昌龍 洪賢淑
디자인 — 尹貞子

포토디렉터 — 朱明德
사진 — 全惠敏

업무·광고 — 梁承杓 崔兌源
洪先基 金攸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광일사식

출판저널 —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내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康賢斗 | 康泓彬 | 權德周 | 權寧珉 |
| 權五聖 | 金炳翼 | 金聖坤 | 金容雲 |
| 金禹昌 | 金仁會 | 金治洙 | 盧命完 |
| 潘星完 | 邊衡尹 | 徐洸善 | 徐淵昊 |
| 成完慶 | 宋相庸 | 橫鋪夏 | 安秉永 |
| 安輝滄 | 吳光洙 | 劉載天 | 陸明心 |
| 尹錫範 | 李康洙 | 李康淑 | 李學薰 |
| 李光周 | 李萬烈 | 李明賢 | 李相日 |
| 李元馥 | 李重漢 | 李姬載 | 張會翼 |
| 鄭用琢 | 鄭雲暎 | 鄭元植 | 鄭鎮弘 |
| 鄭丙圭 | 曹大鉉 | 趙玉羅 | 陳德奎 |
| 車河淳 | 崔成眞 | 崔元植 | 崔載賢 |
| 崔鏞華 | 韓相震 | 韓勝憲 |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20회분을 계속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20회분 단위로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증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 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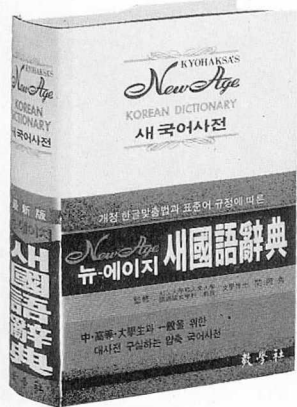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5월25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 앞(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 내)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42호(6월5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 敎學社에서 펴낸 「뉴 에이지 新國語辭典」(정가 9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제1

당나라 시인 杜甫는 도탄에 빠진 나라와 백성을 근심하는 시를 많이 썼다. 두보의 시들을 조선 성종 때 柳允謙 등이 한글로 옮겨 펴낸 책 이름은 무엇인가?

1. 靑丘永言
2. 杜詩諺解
3. 海東歌謠

문제2

일제 말기인 1939년 2월에 창간된 문학종합지로서, 신인 추천제를 두어 시인 이한직·박두진·박목월, 소설가 최태웅·정중업 등 신인작가 20여명을 문단에 등단시킨 것으로도 유명한 이 잡지의 이름은?

1. 少年
2. 白潮
3. 文章

문제3

그는 프랑스의 시인이며 과학자이자 군인이었다. 특히 코가 매우 큰 것으로 유명해서, 극작가 에드몽 로스탕(1868~1918)은 그를 주인공으로 삼아 희곡작품을 쓰기도 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

1. 코르네이유
2. 라신스
3. 시라노 드 베르즈락

문제4

고대 그리스 최대의 철학자였으나 단 한편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던 인물은 누구인가? 다만 그의 사상은 애제자가 쓴 유명한 저서 「향연」 「대화편」에 잘 집약되어 전해지고 있다.

1. 플라톤
2. 아리스토텔레스
3. 소크라테스

출제·홍윤기

제38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모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8호(4월5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224통, 이중 정답은 196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1. ①思美人曲

松江 鄭澈(1536~1593)이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읊은 작품이다. 「關東別曲」은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관동팔경과 해금강·내금강·외금강 등 절승지를 유람하며 읊은 작품이며 「星山別曲」은 역시 정철이 星山의 서하당·식영정을 중심으로 철마다 변하는 경치를 노래한 작품이다.

2. ②상록수

심훈(1901~1936)이 동아일보(1935.9)에 현상 응모해서 당선됐던 작품.

3. ③단테

4. ①릴케

당첨자

- 조용상(서울 강동구 천호1동 221-28)
- 송철희(서울 마포구 합정동 417-6)
- 김종구(경남 밀양시 가곡동 2구 631)
- 라경희(충북 청주시 사창동 316-24)
- 박순규(대구시 북구 산격동 138-2-65)